

7세기 백제 도래인 승려 도소(道昭)의 생애와 활동

The Life and Activities of Dōshō(道昭), Kudara Toraiins monk, in the 7th Century

심경순*

국문요약 삼국시대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하면서, 그중 몇몇 도래계 씨족은 백제의 선진문물을 기반으로 일본 내 각 분야에 서 활약하며 유력 가문으로 자리 잡았다.

도소는 도래계 유력 씨족 가문인 왕진이의 후손으로, 당 유학을 통해 현장과 혜만으로부터 법상종과 선법 수행을 배웠고, 귀국 후 일본 내에서 불교 사상과 선법 전하며 다양한 사회구제활동을 전개하였다. 십 년간 전국을 주유하며 우물 개발, 도선 마련, 가교 건설 등의 사회구제활동을 통한 민간 포교를 진행했다. 도소의 사회구제활동에는 현장과 혜만의 영향뿐만 아니라 입당 전 원흥사에서 함께 머물렀던 고구려승 도등의 영향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도소가 우물개발, 우치교 건설과 도선 마련 등과 같은 대규모의 사회구제활동을 십 년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선사씨 가문의 정치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이 밀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도소는 귀국 후 선원에서는 교학을 가르치고 선법을 수행하였고, 절 밖에서는 대중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구제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말년에 대승도의 직책에 처음으로 임명되었으며, 도소의 사회구제활동을 통한 민중포교는 이후 제자 행기에게로 계승되었다.

핵심어 道昭(道照), 百濟系 渡來人, 王辰爾, 船氏, 宇治橋, 續日本記

- 차례**
- 머리말
 - 도소 관련 문헌과 출처(出自) 분석
 - 중국 내 구법활동
 - 귀국 후 사회구제활동
 - 맺음말

1. 머리말

6세기 성왕대 일본에 불교가 공전된 후 많은 백제 승려가 일본에서 다양한 전법활동을 진행하였다. 일본 내에서 활동한 백제승들은 백제에서 도입한 전법승과 일본에 정착하여 토착화된 도래인 후예 승려로 구분할 수 있다.¹

1 6, 7세기 백제에서 도입하여 일본에서 활동한 백제 전법승은 총 29명으로 1기(550~600) 14명, 2기(600~660) 6명, 3기(660~700) 9명이며(심경순, 「고대 백제승 연구」, 전주대 박사학위논문, 2020, 116쪽), 『일본서기』 승명 분석을 통해 7세기 백제 도래인 승려 일부를 살펴본 바 있다(심경순, 「백제불교와 일본 고대불교의 발전」, 『백제연구』 76, 충남대 백제연구소, 2022, 112쪽).

도래인은 백제, 고구려, 신라 등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지만, 대부분 ‘백제’인으로 일본에 건너온 사람을 지칭한다.² 그리고 몇몇 도래씨족은 일본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유력한 가문으로 자리잡았다. 도래계 유력 씨족 가문 왕진이의 후손인 도소는 일본 내에서 불교 사상 및 선법 전파, 다양한 사회구제활동을 한 인물로, 일본 내에서 일본 고대 불교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³ 또한 도소는 중국 구법활동과 관련하여 견당 유학승으로서 견당사 초기 일본과 중국 간 문교류면에서 활약했던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다.⁴

되어 쓰이고 있다. 박해현은 ‘도래인’과 ‘유민’을 전자는 대화(大化) 이전 마한,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고유 직능을 바탕으로 기반을 잡은 씨족, 후자는 660년 백제 멸망 후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유민과 그 후손들로 구분, 정의하였다. 또한 행기를 ‘토착화된 渡來人 후예’로 분류하였다(『백제계 도래인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 『선사와고대』 70, 한국고대학회, 2022, 7쪽). 도소는 행기와 같은 ‘토착화된 도래인 후예’로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토착화된 도래인 후예 승려를 기존의 백제전법승과 구별하여 편의상 ‘백제 도래인 승려’로 칭하기로 한다.

2 박해현, 앞의 논문, 2022, 15쪽. 또한 백제계 도래인의 이주 시기에 대해 ‘야요이 전기인 BC 2세기 무렵, 광개토왕의 남진으로 한성이 압박을 받던 4세기 말~5세기 초,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된 5세기 말, 백제 멸망 후 백촌강 전투 패배로 부흥 운동이 실패한 7세기 말’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3 水野柳太郎, 「道照伝考」, 『奈良史学』 1, 奈良大学史学会, 1983, 1쪽. 襄輪顯量은 戒·定·慧 三學을 배우고 불법을 체득해 지도하는 승려가 탄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도소가 삼학의 하나인 定을 본격적으로 일본에 전하고 승가를 만든 최초의 인물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도소가 일본에 법상종과 禪定을 처음 전하였다고 하였다(「道照 三蔵法師に教を乞うた 仏教導入の先駆者」, 『歴史読本』 55(2), 2010, 50쪽, 533쪽). 渡部正英은 도소가 일본 내 선종을 초전하였고, 법상종 승려로 官僧인 동시에 좌선을 하는 禪宗 승려로 보았다(渡部正英, 「中国初期禪宗と禪宗日本初伝の道照について」, 『宗教研究』 79(4), 日本宗教学会, 2006, 258쪽, 259쪽).

4 夏元元은 도소 연구의 문제점으로 견당사 초기 가장 중요한 입당승 도소에 관한 연구가 다른 입당승에 비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遣唐使初期の重要人物-道照について」, 『アジア遊学』 27, 2001, 27쪽). 국내에서는 1910년대에 불교잡지에서 도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일본 불교사에서 법상종과 선종이 도소에 의해 전래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雲陽沙門, 「教史(前續) 第四章 日本史」, 『朝鮮佛敎月報』 4, 1912.5, 29쪽; 金泰洽, 「東洋佛敎の概説」, 『佛敎』 41, 1927.11(소화 2년), 9쪽; 金泰洽, 「東洋佛敎の概説」, 『佛敎』 42, 1927.12).

<국내 도소 연구>

도소에 대한 단독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도래계 씨족 왕진이 연구 관련, 일본내 법상종 성립 및 행기 연구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 ① 왕진이 연구 관련: 연민수, 『일본고대국가가와 도래계 씨족』, 학연출판사, 2021; 「왕진이 일족의 문서행정과 시조전승」, 『동북아역사논총』 62, 동북아역사재단, 2018.
- 박재용, 「고대 일본의 蘇我氏와 百濟系 씨족」, 『한국고대사연구』 86,

한국고대사학회, 2017; 「6세기 고대 일본 백제계 도래인과 불교」, 『백제문화』 50,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14.

청목간, 「日本 古代佛敎の 成立에 관한 研究」,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1.

② 불교 교학 및 행기 연구 관련

김천학, 「고대 한국불교와 남도육종의 전개」, 『동방학』 23,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2.

襄輪顯量, 김천학 역, 『일본불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이운옥,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운주사, 2020; 「고대 일본불교의 한국계 승려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2016.

박해현, 「일본 고대 불교 발전에 기여한 백제 도래인」, 『한국고대사연구』 83, 한국고대사학회, 2016.

김춘호, 「고대 일본불교의 민간포교」, 『일본불교사연구』 5,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2011.

<일본내 연구>

일본 내에서는 도소의 구법활동 및 불교사상, 사회구제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소 단독 연구성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소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관련 사료 분석

ステフェン・デル(DöllSteffen), 「玄奘門弟道昭和尚に関する文献上の一考察」, 『玄奘三蔵-新たなる玄奘像をもとめて』, 勉誠社, 2021.

姜健榮, 「道昭法師について」, 『Korea today』 43(9), ANC社, 2018.

石川逸子, 「道昭:三蔵法師から禪を直伝された僧の生涯」, コールサク社, 2016.

藤田琢司, 「元亨釈書」 訳注(2)元興寺道昭伝, 『禪文化』 197, 禪文化研究所, 2005.

水野柳太郎, 「道照伝考」, 『奈良史学』 1, 奈良大学史学会, 1983.

中村浩, 「僧道昭に関する諸問題」, 『大和文化研究』 14(8), 大和文化研究会, 1969.

近藤喜博, 「沙門 道昭伝としての「納袈裟一条」-新資料紹介-」, 『古美術』 10, 三彩社, 1965.

② 중국내 구법활동

襄輪顯量, 「日本における玄奘の門下生に見る修行道-道昭と行基」, 『玄奘三蔵-新たなる玄奘像をもとめて』, 勉誠社, 2021; 「道昭 三蔵法師に教を乞うた 仏教導入の先駆者」, 『歴史読本』 55(2), Kadokawa, 2010.

蔵中 しゆぶ, 「皇子文化圏と仏教の交流--初唐文化と道昭」, 『東アジア比較文化研究』 5, 東アジア比較文化国際会議日本支部, 2006.

夏元元, 「遣唐使初期の重要人物--道昭について」, 『アジア遊学』 27, 勉誠社, 2001.

長島健, 「遣唐使使船の唐における接岸地・出帆地と道昭の帰朝年次」, 『海史研究』 20, 日本海史学会, 1973.

③ 귀국 후 활동: 불교사상 전파·선원건립·사회구제 활동 등

襄輪顯量, 「日本の初期法相宗に見る修行: 道昭・行基・徳一を中心に」, 『印度學佛敎學研究』 70(2), 日本印度学仏敎学会, 2022.

渡部正英, 「中国初期禪宗と禪宗日本初伝の道照について」, 『宗教研究』 79(4), 日本宗教学会, 2006.

直林不退, 「道昭における菩薩戒の受容」, 『仏教思想文化史論叢: 渡辺隆生教授還暦記念論文集』(1), 永田文昌堂, 1997.

吉田靖雄, 「法相宗の伝来と道昭・行基の関係」, 『古代史論集』上, 塙書房, 1988.

石村 喜英, 「僧道昭の火葬をめぐる諸問題」, 『史迹と美術』 48, 史迹美

기존 도소 연구에서는 대부분 그의 귀국 후 불교교학 전파 및 사회구제활동에 대해 중국 구법활동 중 사사받았던 현장과 혜만의 영향을 대부분 지적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왕진이 일족인 선사씨 가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도소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소 관련 문헌과 출자(出自) 분석

『속일본기』에 따르면 도소⁵는 하내국 단비군 사람으로 속성은 선련(船連)이고, 혜석(惠釋)⁶의 아들이다. 653년(백제 4) 입당하여 8년 간 현장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선법을 익혔다. 귀국 후에는 일본 내 법상과 선법 처음으로 전하였고, 다양한 사회구제활동을 통해 일본 고대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본 장에서는 도소 관련 주요 사료를 정리해 보고, 그 속에서 도소의 출자와 도래계 씨족인 선사씨 가문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사료에서 도소의 전기 및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⁷

그중 출자 관련 내용은 <표 2>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신 지역 및 가문, 생몰년을 추정해 보면, 도소는 河内國(현 오사카) 丹比郡 출신으로⁸ 속성은 선련, 소금하 혜석의 아들이다. 700년(문무 4) 72세의 나이로 입적했다는 『속일본기』, 『본조고승전』 등의 기록에 따르면 도소의 생몰년은 629년~700년이다. 도소는 입당 전 원흥사에 머물렀고(居元興寺, 住元興寺), 원흥사 승려(元興寺道昭和尙)라는 기록으로 볼 때, 원흥사에서 출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신지인 하내국 단비군은 『일본후기(日本後紀)』에 따르면 갈정(葛井), 선(船), 진(津) 세 성씨의 묘가 있는 곳으로, 한반도 도래인들의 주요 거주지였다.

丁巳 正四位下行左大辨兼右衛士督皇太子學士伊勢守菅野朝臣眞道等言 己等先祖 葛井船津三氏墓地 在河内國丹比郡野中寺以南(『일본후기』권8 연력18년 3월)

하내지역은 하내호를 중심으로 수리체계가 발달하였고, 한반도의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면서 선진 문화가 싹을 틔웠다. 또한 이 지역의 백제계 씨족들은 서로 혼인 또는 동족의식을 가지고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왜국내 유력씨족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백제계 씨족들은 점차 대화정권의 체제에 편입되었고, 소아씨는 백제의 선진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고대국가의 기틀을 완성해 나갔다.⁹

術同放會, 1978.

梅林久高, 「律令体制成立下における道昭の仏教思想」, 『仏教史學論集』, 永田文昌堂, 1977.

長洋一, 「律令制と仏教-道昭について-1-」, 『神戸女学院大學論集』 19(3), 神戸女学院大學研究所, 1973.

守屋茂, 「宇治橋の紀功碑と道登·道昭」, 『史迹と美術』 42(7), 史迹美術同放會, 1972.

藤野道生, 「道昭和尙の帰朝と禪院の創建」, 『日本仏教史』 2, 国立国会図書館, 1957.

5 사료 속 도소는 道昭(일본서기, 부상약기, 원형석서, 본조고승전, 삼국불법전통연기, 심오초) 또는 道照(속일본기, 일본명이기, 일본삼대실록, 금석물어집)로 표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 『속일본기』와 『일본명이기』 양 사료를 비교분석한 水野柳太郎은 두 사료의 옹례가 '道照'로 일치한 것은 같은 계통의 원사료에서 나온 '近縁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水野柳太郎, 앞의 논문, 1983, 3쪽).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道昭로 표기한다.

6 『일본서기』에서는 혜척(惠尺)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뒤에 왕진이 일족의 활동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7 스테펜·델은 고대부터 중세까지 도소 전기를 취해 현장으로부터 전법 부분을 개관, 초기 2종(『속일본기』, 『일본명이기』) 및 그 외 17종의 사료를 정리하였다(스테펜·델, 앞의 논문, 2021, 249~253쪽). 夏元은 도소의 재당 활동을 알려주는 사료를 9종으로 정리하였고, 그중 禪을 배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사료로 『속일본기』, 『본조고승

전』, 『원형석서』로 정리하였다(夏元, 앞의 논문, 2001, 19쪽). 水野柳太郎은 기본적 사료로 8세기말엽 『속일본기』와 9세기 초 『일본명이기』, 『삼대실록』을 꼽았다. 한편 종래 연구에서 『부상약기』나 『금석물어』 같은 나중에 나온 사료에 대해 충분히 사료비판을 하지 않고 도소를 고찰해 왔다고 비판하며, 10세기 이후 사료에 새로 채록된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충분한 사료비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水野柳太郎, 앞의 논문, 1983, 1쪽, 28쪽). 본 논문에서는 夏元이 정리한 사료 중 비교적 도소의 생애 및 활동이 상세한 사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8 『원형석서』에는 丹北郡으로, 나머지 사료에서는 丹比郡으로 표기. 평안시대(794~1185) 후기 丹南郡·丹北郡·八上郡 등으로 분리되었다(藤田琢司, 앞의 논문, 2005, 85쪽 각주 4).

9 박재용, 앞의 논문, 2017, 196쪽.

〈표 1〉도소 관련 주요 문헌

출처	주요내용
『日本書紀』卷第25 孝德 白雉 4년	-견당사를 따라 학문승 10명과 함께 입당(653)
『續日本記』卷1 文武 4년	-河内國 丹比郡 출신, 속성은 선련, 부 혜석 -현장에게 선법을 배움 -귀국 중 등주에서 치병 활동 -다양한 사회구제활동 진행 -평성 천도 후 선원 移建. 당에서 가져 온 다수의 경론 보관 -견당사를 따라 입당(653) -귀국 시 사리, 경론을 가져 옴 -귀국 후 원흥사에 선원 건립 및 선법 강의 -72세 입적(700). 火葬(최초)
『日本靈異記』上卷 第22, 28	-성은 선씨, 하내국 출신(권22) -귀국 후 여러 경전 강의 및 중생교화(권22) -칙명에 따라 입당. 당에서 현장에게 가르침을 받음(권22) -당에서 구법 중 신라 산중에서 『법화경』 강의(권28)
『三代實錄』卷32 陽成 元慶元年 12月	-선원사 창건(662). 진신사리 및 경론 일체 보관 -877년(원경원년) 선원사를 원흥사 별원으로 함 -천도 이듬해 平城京으로 이건(711)
『扶桑略記』第4 孝德 白雉 4년 文武 大寶元年	-하내국 출신(653년조) -신라산중에서 『법화경』 강의(653년조) -귀국 후 선원건립 및 강의(653년조) -653년 입당. 현장에게 가르침을 받음. 禪門 익힘(653년조) -등주에서 使人들 병 치료 -新羅山寺에서 머물며 법화경 강의(701년조)
『心要鈔』第3 三學問	-삼장에게 無性衆生義, 선법 수학
『今昔物語集』卷第11 本朝 仏法	-속성은 丹氏, 하내국 출신. 원흥사 승려 -도사 500명의 요청을 받아 신라에서 법화경 강의. 역소각과 대화 -칙명으로 입당, 대승유식을 배움 -귀국 후 선원 설치 및 유식 강의
『三國佛法傳通緣起』卷中 法相宗	-653년 입당. 현장에게 가르침을 받음. 자인과 함께 수학, 관문을 전수받았고 귀국 후 널리 전함 -三藏新翻 신역 경론, 여러 경전을 가져 옴
『元亨釋書』卷第一 傳智1之1 釋道昭	-世姓은 선씨, 内州 丹北郡 출신. 원흥사 거주 -현장(장안), 헤만선사(상주)로부터 선법 수학 -귀국 시 佛舍利, 經論, 法相宗章疏 가져 옴 -『능가경』의 八識·五法·三自性·二無我 설법 시초 -평성 천도 후 선원 이건 후 경전 보관 -칙명에 따라 견당사 및 구법승 13인과 함께 입당(653) -귀국 중 등주에서 치병활동 -귀국 후 원흥사에 선원 건립 및 사회구제활동 -72세 입적(700). 火葬(최초)
『本朝高僧傳』卷第1 法本1之 1 和州元興寺沙門道昭傳	-姓은 선련씨, 河州 丹比郡人 -현장, 헤만에게 가르침을 받음. 선법 수학 -귀국 중 등주에서 치병활동 -『능가경』의 八識·五法·三自性·二無我 설법 시초 -72세 입적. 화장 -칙명에 따라 견당사 및 구법승 13인과 함께 입당(653) -귀국 시 불사리, 경론, 法相宗章疏 가져 옴 -귀국 후 원흥사에 선원 건립(평성천도 후 이건) -약사사 수불 개안식 강사 초빙. 대승도 임명 시초(698) -입당 및 법상종을 전한 4명중 第一番

〈표 2〉도소의 출자 관련 내용

- 三月己未 道昭和尙物化 天皇甚悼借之 遣使甲聘之 和尙河内國丹比郡人也 俗姓船連 父惠釋少錦下 和尙戒行不缺 尤尙忍行...元有氣息。時年七十有二(『속일본기』 권1 문무 4년)
- 故道照法師者船氏 河内國人也(『일본영이기』 상권 제22)
- 件年 元興寺道昭和尙 隨使入唐【河内國人】(『부상약기』 제4 효덕 백치 4년)
- 俗姓是丹氏 河内の國の人也 幼にして出家して 元興寺の僧と成れり(『금석 물어집』 권제11)
- 世姓船氏 内州丹北郡人也 居元興寺 有戒行譽(『원형석서』 권제1 전지1지1)
- 釋道昭姓船連氏 河州丹比郡人 天資明敏戒珠無缺 住元興寺 聲暢四方...享年七十有二(『본조고승전』 권제1 법본1지1)

이와같이 4~7세기를 중심으로 일본고대국이 형성기에 한반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로 건너가 정착 하면서 각종 선진기술과 문화를 전하고 일본 고대문화 및 국가 형성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을 ‘渡來人’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도래인 집단으로는 東漢氏와 秦氏, 阿直씨와 西文氏, 王辰爾일족 등이 있으며, 사료상 모두 백제에서 도

래한 것으로 전해진다.¹⁰

〈표 2〉를 보면 도소의 속성은 여러 사료에서 船連, 船連氏, 船氏, 丹氏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도래인 왕진이 일족과 연관된 성씨이다. 왕진이의 도래 시기는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료에서 그의 활동이 처음 보이는 553년(흙명 14) 이전의 가까운 시기로 추정된다.¹¹ 왕진이 일족은 하내지역의 다른 백제계 씨족보다 비교적 늦게 도왔으나 당시 유력 씨족인 소아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갔다.¹²

왕진이를 비롯한 그의 일족들은 문서 행정을 담당하는

10 나행주, 『일본고대국가와 백제계 도래인』, 『한일관계사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2015, 15쪽.
11 연민수, 앞의 논문, 2018, 204쪽.
12 박재용, 앞의 논문, 2014, 68쪽. 또한 왕진이의 도래가 백제와 소아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6세기 왜국의 대외관계 변화와 백제계 씨족』, 『백제와 주변세계』, 진안진, 2012, 240쪽).

사성(史性) 씨족으로 재정, 조세, 역사편찬, 외교, 불교 등 다방면에 걸쳐 활약하였다.¹³ 도소 이전 왕진이 일족의 분야별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왕진이 일족의 분야별 활동

인명	활동시기		활동분야	활동내용
왕진이	553년	흠명 14년	문서행정	선부를 기록하고 선장에 임명됨. 船史 성을 받음 ¹⁴
담진	569년	흠명 30년	문서행정	1월 白猪田部の 丁籍을 조사함 4월 백저전부의 丁의 수를 조사하여 호적 작성. 그 공으로 백저사 성을 받고, 田令에 임명 ¹⁵
왕진이	572년	민달 원년	문서행정	여러 史들이 해석하지 못한 고구려의 表文을 船史의 조상인 왕진이가 능히 읽고 해석함 ¹⁶
담진	574년	민달 3년	문서행정	갈비국에 소아마자대신을 파견하여 백저둔창과 전부를 늘리고 전부의 호적인 명적을 담진에게 줌 ¹⁷
우	574년	민달 3년	재정 ¹⁸	선사 왕진의의 아우. 津史 성을 받음 ¹⁹
선사왕평	608년	추고 16년	외교	4월 소아신매자가 당 사신 배세청 일행과 축자에 도착 6월 사신들이 難波津에 정박. 이 날 飾船 30척으로 사신들을 강 입구에서 맞이하여 新館에 안치함. 中臣宮地連烏摩呂·大河內直糠手·船史王平을 掌客으로 임명하여 사신을 응대함 ²⁰
선사릉	609년	추고 17년	외교	4월 백제 승려와 일행이 비후국에 표착하자 난파길사로 덕마려와 선사릉을 파견함 5월 덕마려와 선사릉 두 사람을 다시 보내어 百濟人들을 본국으로 송환함 ²¹
선사해척	645년	황국 4년	修史	불타던 『국기』를 구해내어 중대형황자에게 바침 ²² 664년 이후 소금하 임명

13 연민수, 앞의 책, 2021, 111쪽.

14 秋七月辛酉朔甲子 幸樟宮宮 蘇我大臣稻目宿禰 奉勅遣王辰爾 數錄船賦 卽以王辰爾爲船長 因賜姓爲船史 今船連之先也(『일본서기』 권제19 흠명 14년).

15 卅年春正月辛卯朔 詔曰…年卅十餘 脫籍免課者衆 宜遣膽津 膽津者【王辰爾之甥也】 檢定白猪田部丁籍(『일본서기』 권제19 흠명 30년).

夏四月 膽津檢閱白猪田部丁者 依詔定籍 果成田戶 天皇嘉膽津定籍之功 賜姓爲白猪史 尋拜田令 爲 瑞子之副(『일본서기』 권제19 흠명 30년).

16 丙辰 天皇 執高麗表疏 授於大臣 召聚諸史 令讀解之 是時 諸史 於三日內 皆不能讀 爰有船史祖王辰爾 能奉讀釋(『일본서기』 권제20 민달 원년).

17 冬十月戊子朔丙申 遣蘇我馬子大臣於吉備國 增益白猪屯倉與田部 卽以田部名籍 授于白猪史膽津(『일본서기』 권제20 민달 3년).

18 사료상 왕진이 동생 우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사성된 '津史'라는 성으로 미루어 볼 때, '津'도 선박이 정박하는 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필을 기반으로 한반도 국가들과의 무역활동을 통해 왜 왕권의 재정을 확충하고 씨족의 번영을 추구해 나갔을 추측해 볼 수 있다(연민수, 앞의 책, 2021, 124쪽).

19 戊戌 詔船史王辰爾弟牛 賜姓爲津史(『일본서기』 권제20 민달 3년).

20 十六年夏四月 小野臣妹子 至自大唐 唐國號妹子臣曰蘇因高 卽大唐使人 裴世清·下客十二人 從妹子臣 至於筑紫 遣難波吉士雄成 召大唐客裴世清等 爲唐客更造新館於難波高麗館之上.

六月壬寅朔丙辰 客等泊于難波津 是日以飾船卅艘 迎客等于江口安置新館 於是中臣宮地連烏摩呂·大河內直糠手·船史王平爲掌客(『일본서기』 권제22 추고 16년).

21 十七年夏四月丁酉朔庚子 筑紫大宰奏上言 百濟僧道欣·惠彌爲首 一十人 俗七十五人 泊于肥後國葦北津 是時 遣難波吉士德摩呂·船史龍 以問之曰 何來也(『일본서기』 권제22 추고 17년).

五月丁卯朔壬午 德摩呂等復奏之 則返德摩呂·龍 二人 而副百濟人等 送本國 于對馬 以道人等十一 皆請之欲留 乃上表而留之 因令住元興寺(『일본서기』 권제22 추고 17년).

22 己酉 蘇我蝦夷等臨誅悉燒天皇記·國記·珍寶 船史惠尺卽疾取所燒國記而奉獻中大兄(『일본서기』 권제24 황국 4년).

<표 3>에서 왕진은 553년 소아도목의 지시로 船長이라는 직책을 맡아 선박의 관세를 기록, 이 일을 계기로 선사(船史)라는 性을 받았다.²³ 572년에는 기존의 사관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있던 고구려의 외교문서를 해석해냄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 받았다.

왕진의의 동생 牛와 조카 膽津은 동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²⁴ 특히 조카 담진은 호적 관련 업무에서 왕진이 만큼 큰 활약을 보였다. 569년 정적(丁籍)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은 백저전부는 설치한 지 10여 년이 지나 호적에서 누락되어 課役을 면제받는 사람이 많은 상태였다. 이에 담진이 백저전부의 조사 및 호적 작성을 맡게 되었고, 백저전부의 丁을 조사하여 조칙에 따라 호적을 작성하였다. 결국 田戶를 완성한 공을 인정받아 백저사(白猪史)라는 성을 받았고, 둔창 관리 및 조세를 거두는 田令에 임명되었다.

6세기 중후반 도래 직후 왕진이와 담진이 일족을 이끌

23 船史씨는 683년 連의 성을 받게 되어 '船連'으로 개성. 冬十月乙卯朔己未…船史…并十四氏 賜姓曰連(『일본서기』 권제29 천무 12년(683)).

24 연민수, 앞의 논문, 2018, 2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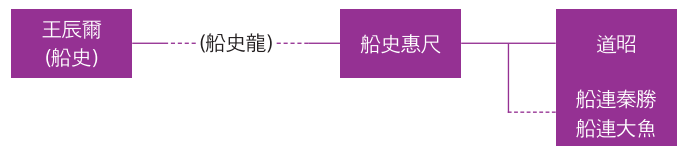
었다면, 7세기 추고기에는 선사왕평과 선사룡이 외교분야에서 외교적 수환을 발휘하였다. 608년(추고 16)년 견당사로 갔던 소야신매자는 당 사신 배세청과 下客 12명과 함께 귀국하였는데, 이때 선사왕평은 장객으로서 임명되어 새로 축조한 신관에서 사신 일행을 맞이하였다. 한편 609년(추고 17) 백제승려 도흔, 헤미 등을 포함한 백제인 85명이 비후국에 표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일을 조사하기 때 선사룡은 현지에 파견되어 표류된 백제인들을 통해 사고 경위 및 정황 등을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후 표류민에 대한 상부의 송환 지시에 따라 이들을 백제로 다시 송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11명이 왜국 체류 의사를 밝혔고, 선사룡은 이들을 원흥사에 머물게 했다.

608년 당 사신 배세청 일행의 도착은 중국왕조의 사신이 왜국에 처음으로 온 것이었다. 이 중요한 민감한 외교적 사안에 장객사(掌客使)로 선사왕평을 발탁한 것은 史性 씨족으로서의 높은 학식과 도래계 출신의 국제적 식견이 작용한 것으로,²⁵ 외교에서 수세적 입장인 왜왕권으로서 는 최선의 대응이었다.

또한 609년 민간 교류 차원에서의 표류민 발생이라는 돌발 상황을 선사룡이 매끄럽게 처리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두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 갈등이 나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선사씨 가문의 능숙한 외교적 대처 덕분에 왜 정부는 곤란한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도소의 아버지인 선사혜척은 황극기 사서 편찬 분야에 서 활동한 인물이다. 활동시기로 보아 왕진이의 3세손으로 보이고 앞의 선사룡의 아들이거나 조카로 추정된다.²⁶ 도소까지의 계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도소 계보



*石川逸子, 『道昭』, コールサック社, 2016, 4쪽 <道昭系図> 참조

앞의 <표 2>의 『속일본기』와 <표 3>의 『일본서기』에 기록된 혜척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혜척의 이름과 관련하여 『일본서기』에는 船史惠尺으로, 『속일본기』 도소전에서는 惠釋少錦下로 기록되어 있다.²⁷ 『일본서기』에 따르면 혜척은 645년(황극 4) 소야신하이 등이 죽기 전 『天皇記』, 『國記』 및 진보(珍寶)를 불태웠는데, 이때 선사혜척이 불타던 국기를 집어내어 중대형에게 바쳤다고 한다. 이 사건은 그가 사관으로서 사서 편찬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혜척이 『천황기』, 『국기』를 중대형황자에게 건네준다. 그동안 왕진이 일족은 도래 후 소야씨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입지를 다져왔고 유력 씨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소야씨 집안의 몰락이라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 가문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불속에서 건져 낸 『국기』를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중대형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유력 씨족의 입지를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20년이 지나(664년 이후) 혜척이 소금하(少錦下) 관위에 임명되고, 700년대 초 선사씨 가문의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관위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²⁹ 소야씨 가문의 멸망

25 연민수, 앞의 책, 2021, 128쪽.

26 연민수, 앞의 논문, 2018, 221쪽.

27 양 사서의 한자명이 다른 것에 대해 水野柳太郎은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의 한자명이 다른 것에 대해 같은 船氏 전승에서 나왔더라도 성립시기가 다른 자료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보았고(水野柳太郎, 앞의 논문, 1983, 4쪽), 연민수는 『속일본기』의 惠釋은 고승의 아버지에 대한 존송의 의미에서 釋을 취한 것으로 보았다(연민수, 앞의 책, 2021, 130쪽).

28 이에 대해 연민수는 일련의 국가 문서류 중에서 제1급 기록인 역사서를 그가 건져냈다는 사실은 해당 사서에 대한 기록, 보관, 유포 등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사관으로서 이 사서의 편찬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연민수, 앞의 논문, 2018, 221쪽).

29 소금하 관위는 664년(천지 3) 26개 관위로 확대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소화상(小海上)과 소화하(小花下) 2계가 소금상, 소금중, 소금하 3계로 개편되었다. 26개 관위 중 12위에 해당 된다.

水野柳太郎은 혜척의 아들 또는 손자 세대로 생각되어지는 船連秦勝, 船

이후에도 도래계 씨족인 선사씨 가문의 정치적 입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왕진이 일족은 나라시대 경준(慶俊)과 자훈(慈訓)이 승강(僧綱)에 올랐고, 白猪史廣成과 津史主治麻呂가 700년대 초 견신라대사로 파견되었으며, 한문학의 대가 葛井連廣成, 대보울령 제정에 참여한 白猪史骨, 『속일본기』 편찬자 菅野朝臣眞道 등 불교와 외교, 학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³⁰

3. 중국 내 구법활동

3.1. 입당 전 활동

『일본서기』에 따르면 도소는 653년(백제 4)년 25세에 천황의 칙령에 따라 학문승 13명과 함께 2차 견당사의 일원으로 중국으로 구법활동을 떠났다.

四年夏五月辛亥朔壬戌…學問僧道嚴·道通·道光·惠施·覺勝·辯正·惠照·僧忍·知聰·道昭·定惠【定惠內大臣之長子也】安達【安達中臣渠每連之子】道觀【道觀春日粟田臣百濟之子】…并一百廿一人 俱乘一船…(『일본서기』 권제25 효덕 백제 4년)

도소의 입당전 행적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표 2>에서 정리한 『속일본기』와 여러 사료를 보면, 도소는 계행을 어기지 않고 忍行을 숭상하였고(속일본기), 어려서 출가해 원흥사 승려가 되었으며(금석물어집), 입당 전까지 원흥사에서 머물렀다.(원형석서). 또한 타고난 품성이 명민하고 계주(戒珠)가 결점이 없었으며, 그의 이름이 사방에 퍼졌

다(본조고승전)고 한다.

위 내용에서 도소는 어려서 출가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절에서 출가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도소는 입당 전과 귀국 후 원흥사에서 머물렀고, '원흥사 승려'라고 하는 점에서 출가 역시 원흥사에서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흥사(비조사)는 최고로 우수한 승려들이 모여있던 사찰로 불교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³¹ 뿐만 아니라 소아씨를 통해 대륙문화 수입의 중심 무대였으며, 정치 외교의 장으로 비조시대 문화는 비조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³² 따라서 6세기 중엽 도래 이후 소아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왕진이 가문과도 관련 있는 곳으로, 앞서 <표 3> 왕진이 일족의 활동에서 선사릉은 609년 백제 표류민 중 道人 등 11명을 이곳에 머물게 한 바 있다. 따라서 유력한 도래계 가문 출신인 도소가 당시 불교계의 중심 사찰이자 선사씨 가문과도 관련한 원흥사에서 출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시 유학생 선발의 대상이 종래의 도래계 씨족 일변도에서 점차 토착씨족의 후예들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³³ 도소가 입당 구법승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도래계 씨족의 유력한 집안 배경과 원흥사 승려로서의 명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2. 입당 후 활동

고대 동아시아에서 승려는 정치문화와 외교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구법승들의 해외 구법 활동은 개인의 신앙심이나 의지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창기 해외 파견 구법승들은 출국 및 귀국 시 사절단과 동행하는 경우가

連大魚가 714년(화동 7) 723년(양노 7)에 각각 정 5위하, 종 5위하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선사일족이 지속적으로 관위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소급하 관위를 받은 것은 사실일 것으로 추정하였다(앞의 논문, 1983, 4쪽).

30 연민수, 앞의 책, 2021, 131쪽.

31 夏元元, 앞의 논문, 2001, 18쪽.

32 원흥사 홈페이지 역사(연표). <https://gangoji-tera.or.jp/read/history.html>(검색일: 2024.09.07).

33 나행주, 앞의 논문, 2020, 12쪽.

많았다.³⁴ 그들은 고대 동아시아 해역을 왕래하는 가운데 불교문화 및 불교사상을 체득하는 구법자인 동시에 국가 간 우호를 매개하는 외교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였다.³⁵

도소가 포함된 653년 2차 견당사단에 유학생과 학문승 36명이 포함된 것은 견당사 파견 목적에 문화교류적인 면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도소는 그 중에서 일중문화교류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⁶

따라서 도소의 구법활동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파견으로 볼 수 있다. 『일본영이기』 등 일련의 사료를 통해 도소가 국가의 칙명을 받고 입당했음을 알 수 있다.³⁷

〈표 5〉 도소 구법활동 관련 사료(1)

- 隨使入唐 適遇玄奘三藏 師受業焉… 又謂曰 經論深妙 不能究竟 不如學禪流傳東土 和尚奉教 始習禪定 所悟稍多 (『속일본기』 권1 문무 4년)
- 奉勅求佛法於大唐 遇玄奘三藏而爲弟子 (『일본영이기』 상권 제22)
- 隨使入唐(河內國人) 遇玄奘三藏 請益受業… 又謂曰 經論旨深 不能究竟 不如汝學禪門 可傳東土 和尚奉教 博習禪門 所悟稍多 (『부상약기』 권4 효덕 백치 4년)
- 日本道昭和尙於三藏所受無姓衆生義 并傳禪法歸朝 (『심요초』 제3)
- 道照宣旨を承はりて震旦に渡ぬ… 道照の云く、「国王の仰せに依て、唯識の法門を習ひ伝へむが爲に参り来れる也」と… 其の後、唯識の法門を教ふ (『금석물어집』 권제11 제4)
- 道昭和尙越海往唐 遇玄奘三藏 學法相宗… 道昭與三藏宿在同房 與慈恩同

34 입화 구법승의 활동은 국가교류의 일환으로 입당한 경우와 사적으로 입당한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사절단과 동행한 경우가 많았다(정병준, 「당 신라 교류사에서 본 신라구법승」, 『中國史研究』 75, 중국사학회, 2011, 70~79쪽).

35 나행주, 앞의 논문, 2020, 16쪽.

36 夏元, 앞의 논문, 2001, 17쪽.

37 水野柳太郎은 『속일본기』와 『일본영이기』 두 사료에서 울령정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속일본기』에는 단순히 '隨使入唐'으로 있을 뿐인데, 『일본영이기』의 이 부분은 글자가 많고(奉勅求佛法於大唐), '奉勅'이라고까지 되어 있는 것은 『일본영이기』에 정확할 때에, 혹은 영이기의 편자 경계(景戒)로 인해 부가된 것으로 보았다(水野柳太郎, 앞의 논문, 1983, 6쪽, 7쪽). 그러나 直林不退는 불교 제도화를 위한 계율 수용과 관련하여 10師制 유지를 위해 도소를 당에 파견하였고, 도소는 현장으로부터 보살계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直林不退, 앞의 논문, 1997, 210쪽). 따라서 도소의 구법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단순히 『일본영이기』 편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닌 국가의 칙명에 따라 입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學久在門下受學積年 提誘慇懃特傳觀門(『삼국불법전통연기』 권중)

- 奉勅 從遣唐使小山長丹泛海 緇侶同志者道嚴等一十有三人 到長安謁三藏玄奘… 一日 藏語曰 經論文博勞多功少 我有禪宗其旨微妙 汝承此法可傳東徼 昭欣愜修習早得悟解 (『원형석서』 권제1 전지1-1)
- 奉渡海之敕 與沙門定慧道嚴等十有三人 從遣唐使小山長丹入唐… 昭屈長安謁弘福寺玄奘三藏… 命居同房 指摘纖隱 曲示綱猷 昭與慈恩等諸師同社 頡頏 一日 奘語曰 教相繁冗 勞多功少 無如學禪此宗微妙 汝當承此法傳東域 昭伏膺參修 尋獲證悟 (『본조고승전』 권제1 법본1-1)

도소는 653년 입당 후 661년 사신단과 함께 귀국할 때까지 8년 동안 현장삼장과 헤만선사 두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³⁸ 먼저 〈표 5〉의 사료들을 종합하여 도소가 현장에게 배운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³⁹

653년 입당한 도소는 현장을 만나 제자되었다. 당시 현장(玄奘, 622~664)은 17년에 걸친 서역에서의 구법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여(645) 장안에서 당태종의 적극적 지원하에 홍복사 및 자은사에 머물며 역경에 몰두하고 있었다. 도소는 현장을 만나 제자가 되었고(遇玄奘三藏而爲弟子), 법

38 도소의 구법활동 관련 주요 쟁점은 도소의 귀국 시기와 그가 당에서 무엇을 배웠고 일본에 전래했는가 하는 것이다. 귀국연대와 관련, 655년(제명 원년) 귀국설과 661년(제명 7)설이 있다. 많은 다수의 학자들은 후자의 입장이다. 두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도소의 재당시기에는 신역불교에 속하는 법상종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도소가 당에서 배워 일본으로 전래한 것을 섭론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田村圓澄, 『고대 한국과 일본 불교』, 울산대출판부, 1997, 154쪽~158쪽), 도소가 현장을 따라 법상유식학을 배웠고 귀국 후 일본에 법상종을 전한 최초의 승려라는 것이 정설이다(夏元, 앞의 논문, 2001, 18쪽).

첫 번째 쟁점에서 655년 귀국설을 따른다면 구법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현장과 헤만으로부터 법상종의 교법과 선법을 배우고 익히기에는 매우 촉박한 시간으로 661년 귀국설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쟁점에서는 『삼국불법전통연기』에서 도소가 귀국 시 현장 신역 경론을 가지고 왔다고 한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법상종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襄輪顯量, 앞의 논문, 2017, 43쪽). 관련 사료는 아래와 같다.

八月戊戌朔 河邊臣麻呂等 自大唐還(『일본서기』 권제26 제명 원년(655)).

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伊吉連博德書云 辛酉年正月廿五日… 僅到耽羅之嶋 便即召慰嶋人王子阿伎等九人 同載客船 擬獻帝朝 五月廿三日 奉進朝倉之朝)(『일본서기』 권제26 제명 7년(661년)).

三藏新翻經論諸典創傳日域即其人焉(『삼국불법전통연기』 권중 법상종).

39 夏元은 『속일본기』, 『본조고승전』, 『원형석서』, 『부상약기』, 『심요초』 5종의 사료에서 공통된 내용을 다음 2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도소는 입당해서 현장삼장과 사승관계를 맺은 후 처음에는 법상종을 공부했다가, 후에 현장의 권유에 따라 선을 배우기 시작했다. 둘째, 어떤 禪을 공부했는지에 대해 『속일본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형석서』와 『본조고승전』에서 현장이 상주 율화사의 헤만을 추천했고, 헤만의 가르침을 통해 선을 배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夏元, 앞의 논문, 2001, 19쪽).

상종과 유식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學法相宗, 唯識の法門を教ふ). 특히 ‘無姓衆生義’를 배우고 선법을 전수받았다고 한다(於三藏所受無姓衆生義并傳禪法).

이처럼 도소는 현장으로부터 법상종과 유식과 선법을 익혔는데, 현장은 도소를 ‘같은 방에 머물게 하며 그 숨겨진 뜻을 섬세하게 지적해 주고 구도와 기강을 간곡하게 지시하였다(命居同房 指摘纖隱 曲示綱猷). 그리고, 도소는 규기 등 여러 스승들과 여러 해 문하에서 함께 수학했다(與慈恩同學久在門下受學積年, 昭與慈恩等諸師同社頡頏).

도소가 여러 해 동안 현장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교법만 배운 것은 아니었다. 현장은 ‘경론이 심묘하여 그 뜻을 다 알기 어렵고’(經論深妙 不能究竟), ‘경전과 논서의 글이 광대하고 교리의 해석이 번잡하여 수고로움은 많고 공은 적다’(經論文博, 教相繁冗 勞多功少)는 점을 지적하며, 도소에게 ‘禪’을 권유하였다. <표 5>에서 禪流, 禪定, 禪門, 禪法, 禪宗, 觀門은 넓은 의미의 禪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다.⁴⁰ 앞서 부처의 가르침의 교리적, 이론적 방면을 의미하는 ‘經論’, ‘教相’과 대비되는 것으로, 실천적, 의식적 수행 방법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⁴¹

<표 6> 도소 구법활동 관련 사료(2)

· 그 후, 삼장법사의 지시로 상주 능화사에 가서 혜만선사를 뵈었다. 혜만은 선의 중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는 말하였다. “돌아가신 승나 스승께서 말씀해 주셨네. 옛날에 달마선사께서 『능가경』을 2조 혜가 스님께 주시면서 ‘내가 이 중국에 있는 경전을 살펴보니, 이 네권만이 마음과 일치하더구나’라고 말하셨다고 하더군.” 공부가 다 되자, 도소는 삼장법사를 하직하였다. (『원형석서』 권제1 전지1-지1)⁴²

40 禪은 범어 禪那의 준말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드는 일이다. 선악, 시비, 유무에 간섭하지 않아 마음을 안락 자재한 경계에 소요케 하는 것. 곧 坐禪, 선종의 약칭이다. 禪門은 선종, 또는 禪定の 문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禪定은 6바라밀의 하나로, 선은 범어 선나의 준말, 정은 한문으로 번역한 말이다. 곧 禪을 의미한다(운허옹하 편,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2000, 451쪽, 454쪽, 457쪽).

41 叢輪顯量은 『삼국불법전통연구』의 ‘特傳觀門’에서 觀門의 의미에 대해 천태교학의 教門, 觀門으로 이해하고 이를 ‘行學二道’로 치환하여 ‘관문’을 불교수행 전반, 이른바 ‘止觀’을 가르키는 것이고, 도소 졸전의 ‘선’은 止와 觀 쌍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叢輪顯量, 앞의 논문, 2021, 261쪽).

42 又指見相州隆化寺慧滿禪師 滿委曲開示謂曰 先師僧那言 昔達磨以楞伽經付二祖曰 吾觀震旦所有經 唯此四卷可以印心 業成辭藏 藏似佛舍利經論

· 그 후, 삼장법사의 지시로 상주 능화사에 가서 혜만선사를 뵈었다. 혜만은 중요한 (선의 중지를) 보여주고 이어 말하였다. 돌아가신 승나 스승께서 일찌기 말하였다. “옛날에 달마대사가 『능가경』을 2조(2대) 혜가 스님께 주시면서 ‘내가 이 중국에 있는 경전을 살펴보니, 이 네권만이 마음과 일치하더구나’라고 말하셨다고 하더군. 너는 돌아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마땅히 이 네 권에 의지해야 한다.” 도소는 흥복사로 돌아와 작별인사를 했다. (『본조고승전』 권제1 법본1-지1).⁴³

현장은 좀 더 깊은 선법 수행을 위해 상주 능화사의 혜만선사를 추천해 주었고, 귀국 전까지 도소는 혜만을 스승으로 모시고 선법을 수행하였다.⁴⁴

『원형석서』와 『본조고승전』에서 혜만은 도소에게 선의 중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었고(滿委曲開示), 스승 僧那로부터 『능가경』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한 도소에게 ‘귀국하여 이 책을 근거로 중생을 구제(汝歸國度衆當爲所據)’할 것을 당부했다.

혜만 이전 시기는 선종이 형성될 때까지의 前史로, 그 世系는 ‘보리달마-혜가-나선사’로 이어진다. 이때는 ‘선종 형성기’로, 대부분의 선승들은 정주하는 절은 없고, 각지를 돌아다녔다. 수당대에 들어와서도 이 현상은 계속 존재했고, 도소가 입당한 당 전기까지 많은 선종의 부유 승려 집단이 존재했다. 이 선승집단은 빈곤한 생활 환경과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혜만 등이 그 시대 선승의 리더로서 사회의 하층민중들을 동정하여 그들을 도와주고자 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⁴⁵

도소의 스승인 혜만은 나선사를 만난 뒤 그의 도를 받아들여 오로지 집착을 없애는 데 힘썼다. 옷과 발우를 가지고 마을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막히는 것이 없었고, 수시로 베풀고 나눠주었다. 또한 설법을 통해 ‘마음에 대한 논

及相宗章疏付之 亦與臭一鑊子曰 我自天竺持來 煮物治疾必有神効 故我贈汝 昭捧承而出 (『원형석서』 권제1 전지1-지1).

43 又指見相州隆化寺慧滿禪師 滿公鄭重開示 乃曰 先師僧那嘗言 昔達磨大師以 楞伽經付二祖曰吾觀震旦所有經 唯此四卷可以印心 汝歸國度衆 當爲所據 昭還弘福告別 并授以佛舍利經論及相宗章疏又以鑊鑊與之曰 我自天竺持來 煮物治疾必有神効 併以贈汝 (『본조고승전』 권제1 법본1-지1).

44 혜만에게 禪을 배웠다는 내용은 『원형석서』와 『본조고승전』에서 전한다. 叢輪顯量은 『속일본기』의 졸전이나 『일본영이기』와 같은 앞서의 헤이안 시대 전승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형석서』의 저자인 師鍊의 창작으로 보았다(叢輪顯量, 앞의 논문, 2021, 261쪽, 269쪽).

45 夏元元, 앞의 논문, 2001, 22쪽, 23쪽.

의를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큰 진리를 어기게 된다'라고 하며, 스승 나선사와 함께 항상 4권의 『능가경』을 心要로 삼았다고 한다.⁴⁶

혜만이 도소에게 전한 『능가경』은 유송시대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가 번역한 『능가아발다라보경』 4권으로,⁴⁷ 수행자가 닦아야 할 수행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이론은 중국 초기 선종의 근본경전이 되었고, 이 경전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수행하였던 이들을 능가사(楞伽師)라고 하고, 그 선법을 능가선(楞伽禪)이라고 불렀다.⁴⁸

위의 <표 6>에서 도소는 학업을 성취한 후 귀국 직전 현장을 찾아가 작별인사를 하였다.(業成辭藏, 昭還弘福告別) 이를 통해 도소가 귀국 직전까지 혜만 아래서 수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소가 현장을 떠나 용화사로 간 시점을 현장이 역경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옥화사로 떠난 659년 경으로 본다면, 도소가 혜만에게 수학한 것은 659년~661년까지로 볼 수 있다.⁴⁹

도소는 현장으로부터 불사리, 경론, 법상종의 章疏를, 혜만으로부터는 『능가경』을 받아 661년 사신 일행과 함께 귀국했다.

46 遇那隱說法便受其道 專務無著…滿便持衣盃 周行聚落 無可滯礙 隨施隨散 索爾虛閑…故滿每說法…今乃重加心相 深違佛意 又增論議 殊乖大理 故使那滿等師 常齋四卷楞伽 以爲心要(『속고승전』 권제16 齊鄴中釋僧可傳 六向居士).

47 藤田琢司, 앞의 논문, 2005, 86쪽.

48 최동석, 「수행이론에 관한 연구: 4권본 『능가경』을 중심으로」, 『가톨릭사상』 49, 대구가톨릭대 가톨릭사상연구소, 2014, 247쪽.

49 夏元元은 도소가 혜만에게 수업을 받은 기간은 앞서 661년 귀국설을 따른다면, 8년간 재당 기간 중 3, 4년 정도로 추정하였다(夏元元, 2001, 21 쪽). 이와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시기를 추정해 보면, 현장은 659년(현경 4) 역경에 집중하고자 잡무가 많은 수도에서 장안 근교의 坊州 玉華寺로 대덕과 문도들과 함께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 현장은 도소를 혜만에게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京師多務 又人命無常 恐難得了 乃請就於玉華宮翻譯 帝許焉 卽以四年冬十月 法師從京發向玉華宮 并翻經大德及門徒等同去(『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권제10).

4. 귀국 후 활동과 그 영향

도소는 당에서의 8년간의 구법활동을 마치고 661년 사신 일행과 함께 귀국했다. 귀국 후 도소는 다시 원흥사로 돌아와 이곳에 선원을 짓고 머물며 여러 경전을 강설하고 후학을 가르쳤다. 많은 불도들이 이곳에서 禪을 배웠다. 도소는 불법을 널리 폈을 뿐만 아니라 십 년간 진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돕고자 노력했다.

<표 7> 도소의 귀국 후 활동

- 원흥사 동남쪽 귀퉁이에 따로 禪院을 짓고 머무르니 불도들이 이곳에 모여 禪을 배움. 10년간 천하를 주유하며 사회구제 활동(우물, 나무, 교량 등 정비. 우치교 건설)을 한 후 칙명에 따라 선원으로 돌아와 좌선함(『속일본기』 권1 문무 4년).⁵⁰
- 선원을 짓고 머무름. 여러 곳을 주유하며 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교화한 후 선원에 머물며 제자들을 위해 경전의 요의를 풀어줌(『일본영이기』 상권 제22).⁵¹
- 선원사는 견당유학승 도소가 귀국후 임술년(622) 3월 본원흥사 동남쪽 한편에 창건했고 화동 4년(711) 8월 평성경으로 옮겨 다시 세웠다. 도소법사 본원기에 이르길, 진신사리 경론 일체를 한 곳에 안치해 만대에 유통하게 하여 모든 중생이 의지처가 되게하였다고 한다(『일본삼대실록』 권32).⁵²
- 귀조 후 제자들에게 유식의 주요 이치를 설법, 가르침. 선원을 만들어 머무름(『금석물어집』 권제11).⁵³
- 삼장 신역 경론과 여러 경전을 일본에 전함(『삼국불법전통연기』 권중 법상종).⁵⁴
- 원흥사에 머물며 후학을 일깨움. 팔식, 오법, 삼자성, 이무이의 뜻을 전함. 여러 지방을 주유하며 교화를 행하여 존경을 받음. 원흥사에 선원(禪苑)을 만드니, 많은 이들이 도소를 좇아 선을 배움…도소는 불법을 널리 펴는 일 외에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에도 힘썼으니, 길가에 우물을 파거나 나무터마다 배를 준비해 두기도 하였다. 山州(현 교토) 우치의 큰 다리도 도소가 처음 만든 것이다(『원형석서』 권제1 전지1지1).⁵⁵
- 돌아와 후학을 인도하고 일깨움. 『능가경』의 요지인 오법, 삼자성, 팔식, 이무의

50 於元興寺東南隅 別建禪院而住焉 于時天下行業之徒 從和尚學禪焉 於後周遊天下 路傍穿井 諸津濟處 儲鑿造橋 乃山背國宇治橋 和尚之所創造者也 和尚周遊九十有餘載 有勅請還止住禪院 坐禪如故 或三日起 或七日起(『속일본기』 권1 문무 4년).

51 業成之後 到此土 造禪院寺 而止住焉…遍遊諸方 弘法化物 遂住禪院 爲諸弟子 演暢所請衆經要義(『일본영이기』 상권 제22).

52 壬戌年三月 創建於本元興寺元東南隅 和銅四年八月 移建平京城也 道照法師本願記曰 眞身舍利 一切經論 安置一處 流通萬代 以爲一切衆生所依之處焉(『일본삼대실록』 권32).

53 道照、法を習て帰朝の後、諸の弟子の爲に唯識の要義を説聞かめぬる教へ、伝て、于今其の法絶えずして盛也。亦、禪院と云ふ寺を造て住み給けり(『금석물어집』 권제11).

54 三藏新翻經論諸典創傳日域即其人焉(『삼국불법전통연기』 권중 법상종).

55 又止元興寺切論導 此土始開八·五·三·二之旨 又遊諸州事行化國人崇之後於元興寺東南隅別營禪苑 從昭學禪者多矣…昭唱導外勤利濟路傍勞井諸波儲鑿 山州宇治之大橋昭之創造也(『원형석서』 권제1 전지1지1).

설법. 원흥사에 별도의 선원을 만들어 정좌하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선을 배움. 전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구제함. 우물, 선박, 교량 우치교 등 건설. 십년 후 칙령에 따라 선원으로 돌아옴. 매일 정좌함. 698년(문무 2) 약사사 수불식 강사로 초빙. 대승도(大僧都)에 처음으로 임명됨(『본조고승전』 권제1 법본1지1).⁵⁶

도소의 귀국 후 활동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1단계는 원흥사에 선원을 건설해 선을 전파하는 단계이다.⁵⁷ 그는 662년 3월 원흥사 동남쪽에 선원을 건립하고 이곳에서 선정 수행 및 선을 알리는 근거지로 삼았고, 전국을 주유하며 사회구제활동을 전까지 주석한 것으로 보인다. 주석한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선원을 설립 및 정비하고 당에서 가지고 온 경전을 필사하는 등에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이고, 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보아 법상종과 선법 등을 흥포하며 10년 이상 이곳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도소는 선원 밖에서 십 년간 사회구제활동을 진행한 시기이다. <표 7> 『속일본기』, 『원형석서』, 『본조고승전』에서 그 활동 내용을 보면, 길가에 공동 우물을 개발하고, 나루터에는 강을 건널 수 있는 渡船을 마련하였으며, 우치교를 비롯한 교량을 가설했다.

도소의 사회구제활동과 관련 ‘十有餘載’에 대한 여러 설들이 있다.⁵⁸ 梅林久高는 『본조고승전』에서 도소가 698년(문무 2) 70세에 약사사 수불(繡佛) 개안공양식에 강사로 초빙을 받고, 최초로 대승도(大僧都)에 임명되었을 당시 이미 선원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지통천황은 692년 문무천황을 위해 수불을 만들어 기진했는데, 도소는 이때부터 꾸준히 수불개안회의 강사를 맡았으며, 698

년 대승도 최초 임명은 이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소의 사회구제활동 ‘十有餘載’는 681년(천무 9)부터 692년(지통 6)으로 추정할 수 있다.⁵⁹

한편 도소의 귀환을 요청하는 692년 ‘勅請’에 대해 이를 도소의 민간 포교 및 사회구제활동에 위협을 느낀 조정의 민간전도에 대한 탄압으로 보기도 한다.⁶⁰ 그러나 도소의 구제활동에 조정이 위협을 느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도소는 도래계 유력 가문 출신으로, 당 유학을 마친 엘리트로서 조정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다.⁶¹ 그는 당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도 상하, 도속, 남녀를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았고,⁶² 당 유학승인 도등과도 이름을 나란히 할 만큼 명성이 있었다. 귀조 후부터 전국을 주유하기 전 官寺라고 할 수 있는 원흥사에 주석하여 강설과 수행을 하였고 나라사람들이 그를 崇信하였다. 또한 도소가 귀국 후 활동할 당시 도소의 가문을 살펴보면, 아버지 선사혜적은 소금하 관위를 받았고(664년 이후), 선사 가문은 ‘연’씨 성을 하사(683년)받았을 만큼 친정권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도소의 대표적 사회구제활동인 우치교 건설도 칙령에 따른 것이었다.⁶³

59 梅林久高는 『약사사연기』와 『승강보임초출』 사료 분석을 통해 도소의 전국 주유기간을 681년(천무 9)부터 692년(지통 6)까지로 추정했다(梅林久高, 앞의 논문, 1977, 172쪽, 173쪽).

一講堂一宇 重閣七間四面…安置繡佛一張 高三丈 廣二丈…阿彌陀佛像并脇菩薩天人等 惚有百餘體 奉繡之…流記帳云 以 壬辰年四月十二日 奉爲飛鳥清御原宮御宇天皇【天武天皇】藤原宮御宇天皇【持統天皇】奉造而講坐者(『약사사연기』).

文武天皇 第二年…大僧都道昭【十一月十五日任 藥師寺繡佛開元講師賞大僧都始】(『승강보임초출』 상).

60 夏元元은 717년(양로원년) 행기의 민간 전도에 대한 탄압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夏元元, 앞의 논문, 2001, 26쪽).

61 이윤옥, 앞의 책, 2020, 249쪽.

62 世の人、公より始奉て 上下の道俗男女首を低て 貴ひ敬へる事限無し(『今昔物語集』 卷第11).

63 우치교 창건과 관련 대체로 두 가지 설로 나뉜다. 『속일본기』 도소전은 도소의 창건으로, 「우치교단비」나 『일본영이기』(상권)에는 646년(대화 2) 원흥사 사문 도등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藤田琢司, 앞의 논문, 2005, 87쪽). 水野柳太郎은 『속일본기』의 도소전은 현장이나 감진에 관한 설화를 이용해 도소 사적을 윤색하고 있다고 하여 도소의 우치교 가설을 신뢰하기 어렵고, 도등 가설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水野柳太郎, 1983, 15쪽).

이윤옥은 도등설, 도소설, 도등·도소설 3가지 설로 구분하여 검토하였

56 直回南都 專事論導 此土始聽楞伽深旨 五法·三自性·八識·二無我之說 元興寺東南隅 別林禪院 終日定坐 國人崇信學禪者多 昭又遊諸州勤利濟 或鑿義井 或造渡船 架橋梁 化蹟殆遍 城州宇治橋修營此其一也 昭在外十載 有教歸院 昭每坐禪…文武二年冬十一月 藥師寺繡佛成 詔昭爲開眼供養講師 賞任大僧都 此任以昭爲始(『본조고승전』 권제1 법본1지1).

57 夏元元은 1단계 원흥사에 선원을 건설해 선을 전파하는 단계, 2단계 천하를 주유하며 사회사업에 노력하는 단계, 3단계 선원으로 돌아와 머물면서부터 입적까지의 단계로 구분하였다(夏元元, 앞의 논문, 2001, 23쪽).

58 夏元元은 사회구제활동 및 선원으로 돌아온 시점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689-698년설, 666-679년설, 686-699년설, 680-692년설로 분류하고 그 근거와 논박들을 정리하였다(夏元元, 앞의 논문, 2001, 24~26쪽).

〈표 8〉 宇治橋 관련 사료

- 二年丙午 元興寺道登道昭奉勅始造宇治川橋 石上銘 「…世有釋子 名曰道登 出自山尻 慧滿之家 大化二年 丙午之歲 構立此橋 濟度人畜…」(『제왕편년기』 권9)
- 昭又遊諸州勸利濟 或鑿義井 或造渡船 架橋梁 化蹟殆遍 城州宇治橋修營此其一也(『본조고승전』 권제1 도소전)
- 舒明初 從遣唐使歸 住元興寺 專演空宗 與道昭齊名 孝德天皇 大化元年秋八月 詔登及福亮慧雲等十師曰 宜令諸寺衆僧弘傳釋教 二年丙午 勅登道昭始架宇治川大橋(『본조고승전』 권제72 도등전)

〈표 7〉의 『속일본기』, 『원형석서』, 『본조고승전』에서 도소가 우치교를 건설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표 8〉의 『제왕편년기』의 「우치교단비」전문에는 ‘대화 2년 도등이 다리를 건설’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단, 전문 앞에 비문에 없는 원흥사 승려 도소를 부기하여 ‘대화 2년 원흥사 도등, 도소가 칙명에 따라 우치천대교를 가설’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본조고승전』 1권 도소전과 72권 도등전의 경우에도 도소가 우치교를 修營하였거나 도등·도소가 함께 건설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위 사료에서 도소와 도등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646년(대화 2) 우치교 건립 당시 도소는 건당 유학승으로 파견(653년)되기 전으로 원흥사에서 출가 후 머무르고 있었고, 도등은 고구려승으로 당유학 후 서명천황 재위(629~641) 초 도일하여 원흥사에 주석해 있었다.⁶⁴ 당시 도등은 원흥사에 주석해 오로지 공중을 설하여 도소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다(住元興寺 專演空宗 與道昭齊名)고 한다. 따라서 도소가 당으로 떠나기 전 원흥사에서 도등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라 우치교 건설에 동참했을 가능성은

다. 도등 관련 사료 『일본영이기』, 『부상약기』, 『금석물어집』, 『본조고승전』과 도소 관련 사료 『속일본기』, 『원형석서』, 그리고 도등·도소설 관련 사료 『태정관부』, 『제왕편년기』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치교단비」와 단비 전문을 실고 있는 『제왕편년기』를 비교 검토한 후, 고구려승 도등이 646년(대화 2) 건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이윤옥, 앞의 책, 2020, 233~250쪽). 그러나 검토 사료 중 도등 관련 사료로 지목한 『본조고승전』의 경우, 권1의 도소전에서는 도소의 창건으로, 권72의 도등전에서는 칙명에 따른 도등·도소 창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사료상의 오류로 보기보다는 도소와 우치교와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4 이윤옥, 앞의 책, 2020, 233~243쪽.

충분하다.⁶⁵

또한 〈표 7〉 『본조고승전』 1권의 ‘城州宇治橋修營’은 우치교를 수영(修營), 즉 고치거나 수리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⁶⁶ 도소가 646년 우치교 건설에 참여하고 귀국 후 680년대 우치교 개보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⁷

도소가 사회구제활동에 영향을 준 것은 당에서 사사한 현장과 혜만, 그리고 유학승으로 파견되기 전 원흥사에서 만난 도등을 들 수 있다. 현장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복전 사상과 보살행을 접하게 되고, 귀국 후 십 년간의 사회구제활동은 보살행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⁶⁸ 현장으로부터 전수받은 이타 사상과 함께 혜만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당시의 경험도 도소의 사회구제사업에 배경이 되었다. 도소는 혜만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곤한 하층 민중에 대한 동정과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도왔던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⁶⁹ 도등의 경우는 앞서 우치교 건설을 통해 살펴 보았다.

위의 세명의 스승이 도소의 사회구제활동에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다면, 실질적으로 우물 개발, 나무에 도선 마련, 가교 건설 등에 필요한 기술적·물질적 지원을 한 것은 선사씨 가문이다.⁷⁰ 도소의 제자인 행기의 경우 백제계

65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도소-행기의 사승관계를 들 수 있다. 행기는 원흥사에서 출가해, 당 유학 후 이곳에 주석한 도소로부터 법통을 이어받았으며, 실천적인 중생구제 활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박해현, 2016, 352쪽). 또한 도소가 전도나 사회사업에 위해 각지를 돌아다니는 동안, 제자로서 행기를 스승을 수행하며, 현지 기술을 배워 단련하였다(井上薰, 『行基』, 吉川弘文館, 1959, 33쪽).

66 사료에서 修營의 용례로 ‘時清化寺修營佛殿(『속고승전』 15권)’, ‘蒙陛下興建已得修營(『속고승전』 18권)’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67 直林不退는 646년(대화 2) 도등 가설 후 도소가 666년(천지 5) 이를 재가설한 것에 대해 대승보살계라고 하는 유가계의 이타적 입장이 천하주유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으로 도등의 선례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았다(直林不退, 앞의 논문, 1997, 210쪽).

68 복전사상이란 중생을 이롭게하는 이타행, 곧 보살행으로 사회적인 구제 활동이며, 보살행의 실천은 곧 제자 행기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다(이윤옥, 앞의 책, 2020, 85쪽, 86쪽). 박해현은 도소의 사상적 특징은 대승계통의 보살적 행동을 중시한 유식론으로, 보살적 행동을 강조한 유식론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김으로서 중생들의 삶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았다(박해현, 앞의 논문, 2016, 351쪽).

69 夏元元, 앞의 논문, 2001, 24쪽.

70 조선(造船), 가교(架橋)와 같은 사회사업 활동은 船氏가 선박과 관계하고

도래인들을 중심으로 한 재지 호족 세력들이 구제 활동의 재정적 부담을 했다면,⁷¹ 도소의 경우 선사씨 가문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왕진이 일족은 다른 백제계 씨족보다 늦게 도왜했으나 유력 씨족인 소아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갔고, 선사씨는 외교, 재정, 사서편찬 등 다방면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정권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갔다. 또한 도일 직후에는 씨사인 야중사를 세워 불교를 신봉했다. 이후 7세 중후반 씨족불교에서 국가불교로 변화하는 흐름속에서 소외되었던 민중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있었고,⁷² 이와 같은 흐름속에서 선사씨는 도소의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불교계에도 그 영향력을 넓혀갔다.

世傳云 火葬畢 親族與弟子相爭欲取和上骨斂之 飄風忽起 吹颺灰骨 終不知其處 時人異焉 後遷都平城也 和尚弟及弟子等奏聞 徙建禪院於新京 今平城右京禪院是也(『속일본기』 권제 25)

위 사료에서 ‘화장이 끝나고 친족과 제자들이 서로 다투어 화상의 뼈를 가지려고 하였다’ ‘후에 평성 천도시, 화상의 아우와 제자들이 아뢰어 선원을 새 도성으로 옮겨 세웠다’라는 내용에서 도소의 친족, 형제들은 도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입적 후에도 당에서 가져온 사리경전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선원 이건을 주청, 관철시켰다.

이처럼 도소는 선사씨 가문의 정치, 경제, 기술적 지원

을 토대로 십년 간의 사회구제활동 및 민간포교를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소의 귀국 후 활동을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앞서 692년 ‘勅請’에 의한 귀환을 도소의 민간 포교 및 사회구제활동에 위협을 느낀 조정의 민간전도에 대한 탄압⁷³으로 보는 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5. 맺음말

도소는 백제 도래인 후예로 당 유학을 다녀와 법상종과 선법을 처음 전하였고, 귀국 후 전국을 주유하며 십여년간 사회구제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의 활동은 제자 행기의 민간포교에 영향을 주었다. 본문에서는 도소의 당에서의 입화 구법활동과 귀국 후 활동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왕진이 가문의 영향력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먼저 도소 관련 주요 문헌의 비교 정리를 통해 도소의 생몰(629~700)을 추정해 보고, 그의 출신 가문인 船史氏의 성장 과정을 살펴 보았다. 선사씨는 왕진이 일족의 후예로 다른 씨족보다 뒤늦게 도일했지만 오히려 최신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재정, 외교, 조세, 역사편찬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며, 정치적 실권자인 소아씨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본 내 유력 씨족으로 성장해 나갔다.

도소는 건당유학승으로 선발되어 653년 건당사와 함께 당에 파견되었다. 당시 토착씨족 후예들의 유학승 선발 비중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도소의 선발에는 원흥사 승려로서의 명성과 선사씨 가문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소는 8년간 당에서 구법활동을 한 후, 661년 귀국했다. 당에서 현장과 혜만을 스승으로 모시고 법상종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井上薰, 앞의 책, 1959, 32쪽).

71 박해현, 앞의 논문, 2016, 358쪽.

72 김춘호는 민간포교의 흐름이 당시 불교계의 저변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었고, 도소, 다라상, 흥제 등의 백제계 승려들이 이를 주도하였으며, 적극적인 민간포교를 백제불교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다(김춘호, 2011, 65쪽, 88쪽). 이와 같이 백제불교의 특징은 660~700년 백제 전법승 활동이 전법대상 및 지역 확장을 통한 ‘불교대중화와 지역적 확산’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찾아 볼 수 있다(심경순, 앞의 논문, 2020, 116쪽).

73 夏元元은 717년(양로원년)의 행기의 민간 전도에 대한 탄압과 마찬가지로 도소의 사회구제활동에 조정이 위협을 느껴, 농민과 승니를 떨어뜨리고자 칙령을 통해 귀환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夏元元, 앞의 논문, 2011, 26쪽).

과 선법 등을 배웠고, 이를 일본에 처음으로 전하였다. 이때 도소가 두 스승으로부터 배운 대승적 보살계나 혜만과의 선법 수행은 귀국 후 사회구제활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귀국 후 도소는 원흥사로 돌아와 선원을 짓고 머물며 제자들에게 선법을 가르쳤다. 이후 681년 경부터 십년간 전국을 주유하며 여러 사회구제활동을 진행하던 중 692년 경 ‘勅請’에 따라 선원으로 돌아왔다. 이를 도소에 대한 탄압으로 보기도 하는데, 당시 친정권적인 선사씨 가문, 도소의 견당유학생 신분, 칙령에 따른 우치교 건설 진행 등을 고려해 볼 때, ‘칙청’을 도소에 대한 탄압으로 보는 견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도소의 사회구제활동에 영향을 준 인물로 당에서 사사한 현장과 혜만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유학 전 원흥사에 함께 머물렀던 도등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등은 고구려승으로 당 유학 후 도일해 원흥사에 머물며 공중을 강의하고, 우치교를 건설했다. 두 사람이 원흥사에서 함께 머무는 동안 도소는 도등의 불교교학 및 사회교화 활동에 영향 받았을 것이다.

우치교 건설과 관련 646년 도등이 우치교를 가설했을 당시 도소가 참여하였거나 귀국 후 전국 주유 기간 동안 우치교 개보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선사씨 가문의 기술력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선사씨 가문은 도소 이전부터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고, 도소의 출가 이후 당 구법활동, 귀국 후 사회구제활동 등 포교와 관련된 도소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도선 마련, 가교 공사 등에 선사씨의 기술력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소 입적 후 가문에서는 평성경 천도에 따라 선원 이전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그가 당에서 가지고 온 서적과 진신사리 등을 후세에 온전히 전할 수 있었다. 왕진이 가문의 불교에 대한 지원 및 영향력은 경준, 자훈을 통해 나라시대에도 이어졌다.

도소는 선원에서는 불교교학과 선법을 가르쳤고, 절

밖에서는 다양한 사회구제활동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했다. 말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승도의 직책에 최초로 임명되었고, 그의 사회구제활동을 통한 민중포교는 이후 같은 백제계 도래인인 제자 행기에게 계승되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續日本記, 日本靈異記, 三代實錄, 扶桑略記, 今昔物語集, 三國佛法傳通緣起, 元亨釋書, 本朝高僧傳, 帝王編年記, 僧綱補任抄出

2. 단행본 및 논문

- 게카이(景戒), 『일본영이기』, 씨아이알, 2011.
- 菅野眞道, 연민수역, 『역주 속일본기』(상), 해안, 2022.
- 菅野眞道, 이근우역, 『속일본기』(1),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 김영태 외, 『동아시아 한국불교사료: 일본문헌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 나행주, 「7세기 고대일본의 견수사·견당사에 관한 기초적 연구」, 『사총』 99, 고려대 역사연구소, 2020.
- _____, 「일본고대국가와 백제계 도래인」, 『한일관계사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2015.
- 미노와 겐료(菟輪顯量), 김천학역, 『일본불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 박재용, 「6세기 고대 일본 백제계 도래인과 불교」, 『백제문화』 50, 공주대 백제문화 연구소, 2014.
- _____, 「고대 일본의 蘇我氏와 百濟系 씨족」, 『한국고대사연구』 86, 한국고대사학회, 2017.
- 박해현, 「백제계 도래인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 『선사와고대』 70, 한국고대학회, 2022.
- _____, 「일본 고대 불교 발전에 기여한 백제 도래인」, 『한국고대사연구』 83, 한국고대사학회, 2016.
- 연민수, 『일본고대국가와 도래계 씨족』, 학연출판사, 2021.
- _____, 「왕진이 일족의 문서행정과 시조전승」, 『동북아역사논총』 62, 동북아역사재단, 2018.
- 이윤옥,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운주사, 2020.
- _____, 「고대 일본불교의 한국계 승려 연구」, 한국외국어대박사학위논문, 2016.
- 코칸시렌, 정천구역, 『원형석서』(상, 하), 씨아이알, 2010.
- 한보광,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이회, 2015.
- 藤田琢司, 『元亨釈書』, 訳註(2)元興寺道昭伝, 『禪文化』 197, 禪文化研究所, 2005.
- 梅村久高, 「律令体制成立下における道昭の仏教思想」, 『仏教史学論集』, 永田文昌堂, 1977.
- ステフェン・デル(DöllSteffen), 「玄奘門弟道昭和尚に関する文献上の一考察」, 『玄奘三蔵-新たな玄奘像をもとめて』, 勉誠社, 2021.
- 渡部正英, 「中国初期禪宗と禪宗日本初伝の道昭について」, 『宗教研究』 79(4), 日本宗教学会, 2006.
- 菟輪顯量, 「道昭 三蔵法師に教えを乞うた仏教導入の先駆者」, 『歴史読本』 55(2), Kadokawa, 2010.
- _____, 「日本における玄奘の門下生に見る修行道-道昭と行基」, 『玄奘三蔵-新たな玄奘像をもとめて』, 勉誠社, 2021.
- 石川逸子 著, 鈴木比佐雄, 座馬寛彦 編, 『道昭』, コールサック社, 2016.
- 水野柳太郎, 「道昭伝考」, 『奈良史学』 1, 奈良大学史学会, 1983.
- 井上薫, 『行基』, 吉川弘文館, 1959.
- 直林不退, 「道昭における菩薩戒の受容」, 『仏教思想文化史論叢: 渡辺隆生教授還暦記念論文集』(1), 永田文昌堂, 1997.
- 夏応元, 「遣唐使初期の重要人物-道昭について」, 『アジア遊学』 27, 勉誠社, 2001.

Abstract

The Life and Activities of Dōshō(道昭), Kudara Toraiins monk, in the 7th Century

Sim, Kyoung-Soon | Jeonju University

Dōshō is from the Fune-shi(船氏), a descendant of Wangji-ni(王辰爾), who came from Baekje.

Through studying abroad at the Tang Dynasty, he learned the Beopsang Buddhism(法相宗) and Zen Buddhism(禪法) from the Buddhist monk Xuanzan.

After returning from China, Dōshō taught teaching Buddhism and performed Zen Buddhism at Gangō-ji, Outside the temple, we tried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for the public. The reason why Dōshō was able to stably carry out large-scale relief projects such as developing wells, preparing ships, and building bridges for a decade was because of the support of the the Fune-shi.

In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 he was first appointed to the post of Dai-sōzu(大僧都) in his later years, and Dōshō's social relief activities were later succeeded to his disciple Gyoki.

Keywords Dōshō, Toraijin from Baekje, Ojinn, Fune-shi, Uji Bridge, ShokuNihongi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